

설비인 스스로 고유권리 찾는 것이 급선무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함께사는 사회' 만들 터



양천지부 김부길 회원(대신종합인테리어)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충남의 한 생산회사에서 재직하던중 '기술을 배워 내 일을 하면 가족을 좀더 든든하게 부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1989년 상경, 인테리어 기술을 습득, 그해 11월 1일 대신종합인테리어를 창업, 설비업과 인연을 맺었다.

창호, 배란다, 각종유리, 실내장식, 판넬 공사, 대문 등 인테리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있는 그에게 지역주민들은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김부길

양천지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평가에 그는 "소비자는 저렴한 공사비, 실력만으로 공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완벽하게 공사를 해 줄수 있는지를 가장 중시한다. 돈은 없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며 신의를 바탕으로 한 책임시공, 완벽시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봉사활동은 나의 삶의 원천

봉사정신으로 무장

봉사활동에 대해 그는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신정복지관과 공동으로 독거노인 7세대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새로이 지어줬다. 기존의 낡은 천막을 드러내고 말끔한 집으로 단장한

**소비자는 저렴한 공사비, 뛰어난 실력만으로 공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완벽하게 공사를 해 줄수 있는지를 가장 중시한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이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그는 노인들에게 큰 효도를 한 것 같으며 뿌듯해 했다.

이밖에도 양천구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도 맹활약 중이다.

매달 정기 교육을 받는데 힘들긴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출동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 현실성이 있는 정책 필요

경천시장의 현대화 공사에 참여

양천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뉴타운 사업이다. 하지만 신월동은 유독 연립, 단독 등이 많아 재건축, 재개발의 융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구, 서울시, 건교부 등 관련 기관에서 좀더 현실성이 있는 정책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그는 재래시장인 경천시장의 현대화 공사가 참여중인데 “경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아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이다. 어려운 상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설비인의 우리의 고유권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

“최근 설비인들의 고유권리가 작아져가고 있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듯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회원이 절반이 넘고 있다. 이들 중 비회원은 가까운 지부지회에 가입하여 즐겁고 안정되게 업을 영위하며, 설비인으로써의 ‘나’를 찾길 바란다”며, 우리 협회 구성원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합심한다면 반드시 이 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BN